'임자있는 남자 부담없죠'

메트로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이승현 생애 첫 '메이저 퀸'

<8주 만에 하락> <61주 연속 상승>

한풀 꺾인 매매…천정부지 전세

매매가, 소강 국면일뿐 약세 국면 아냐 · 전세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야

이달 말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둔 직장인 이모(39)씨는 전세 재계약 대신 이사를 선택했다. 2년 전 계약 당시 2억5500만원이었던 서울 강서구의 23평형 아파트 전셋값이 현재 3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더구나 집 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추세라 전세 물량 자체도 없는 상황이다. 이씨는 집을 살까도 생각해봤지만,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역대 최장 기록인 61주째 상승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는 8주 만에 꺾이면서 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27일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알리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 6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1년 새 6.84% 올라섰다. 특히 서울 송파구(9.61%), 서초구(9.52%), 강서구(9.39%), 강남구(8.93%), 광진구(8.56%), 양천구(8.0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8월 넷째 주 0.01% 하락한 이후 8주 만이다.

부동산써브 정태화 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서 매매 시장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면서 "일단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8·28대책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올 4분기쯤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것뿐이지 본격적인 약세 국면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아파트 가격은 바닥을 본 것 같다"며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까지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좋든 싫든 주식 가격은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전셋값 고공 행진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 팀장은 "이 문제는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도기 단계다. 내년 상반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경매 선불리 뛰어들면 낭패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싼 값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경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전셋값보다 싼 경매 최저가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2009년 ?건에서 올해는 375건까지 급증했다. 9월 둘째 주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하반기 최고점을 찍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2.3%로 오른데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10개 가운데 4개 이상이 새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섣불리 입찰에 나섰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런 조사 없이 입찰에 들어가다 급매물보다 높게 낙찰받은 사례도 많다"면서 "법적 관계를 살피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향후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김현정 기자 min @metroseoul.co.kr

수능 열흘 앞으로 … 애타는 모정 다음달 7일 치러지는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학부모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수능 법회에 참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흘을 동안 지난 6월과 9월 실시한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시험 당일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9급 지방공무원 시험 내년 6월 실시

올해보다 두달 앞당겨

내년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올해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진 6월 21일에 치러진다.

안전행정부는 27일 '내년도 지방공무원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16개 시·도의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은 내년 6월 21일 일제히 치러진다.

서울시는 내년 6월 중 7·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동시에 실시한다. 총원이 시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은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내년 3월 22일 치른다.

7급 지방공무원 시험은 내년 10월 11일 시행된다.

/윤다혜 기자 yeah@

‘위기의 검찰’ 또 구할까

새 총장 후보에 지난해 '내분' 추스른 김진태 · 민주 "검찰 장악 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대검차장을 지명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바루 정상화하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새 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다"며 "그는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국정원 사건을 이른 시일에 매듭지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1952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한 김 전 차장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4기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과 청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 말 초유의 '검란' 사태로 한상대 전 총장이 중도 퇴진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단기간에 조직을 추스른 인물로, 최근 검찰 내분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돼왔다.

◆ 다음달 중순 청문회 난항 예고

하지만 다음달 중순께 진행될 김 전 차장의 인사청문회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즉각 "능력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 선정됐다.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는 예상대로 철저한 김 비서실장 인사로 보인다. 김 실장이 또 한 명의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보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박 대통령 한국시리즈 '깜짝 시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리는 잠실야구장에 등장, 깜짝 시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30 재보선 휴일 잊은 후보들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27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왼쪽)와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여중생에게 1년간 몹쓸짓

성추행 40대男 징역 5년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심하게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illegible]기자

외교부, 독도 홍보물에 日드라마 무단사용 ‘망신’

외교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독도 홍보 동영상 내용 중에 일본 NHK 방송이 제작한 드라마 영상이 사전양해 없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 다른 '도발'을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교부는 외주업체가 제작한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방송화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일단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동영상이 게재된 이후 일부 배경화면이 NHK의 제작 영상을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한 것임을 인지하게 됐다"며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도 이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수정 보완작업을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일단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 드라마 영상의 무단 사용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에서 이 사실을 외교부에 통보해 처음으로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영상을 제작한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이 드라마의 장면을 내려받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12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외교부가 해당 외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제작해 지난 1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독도 관련 예산 중 4600만 원이 제작비로 투입됐다.

외교부는 관련 동영상 등 문제가 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며 다른 동영상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뉴스 & 뉴스

기관고장 동해 표류하던 북한 어선 北에 인계

●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구조해 북한에 인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어제 기관 고장으로 동해 상에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거진 앞바다로 예인했다"며 "해군과 해경이 나서 기관을 수리하려 했으나 수리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 9시48분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선원 4명이 탄 북한 어선은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고기를 잡다가 기관 고장으로 전날 오전 9시 40분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까지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명품 1위 루이비통…구찌·샤넬 뒤이어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짝퉁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27일 공개한 관세청의 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 결과 200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가짜 루이비통 제품은 총 616점으로 정품 가격 환산 시 4875억원 규모였다.

구찌 516건, 샤넬 508건, 버버리 434건, 프라다 288건이 뒤를 이었다.

법원 “우면산 산사태 국가·지자체 책임없다”

2011년 7월 우면산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은 27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 침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와 경기도·과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화재는 토사와 빗물에 잠긴 자동차 7대의 주인에게 보험금 1억6328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산사태 피해의 50%는 인재라며 보험금의 절반인 8164만원을 국가와 경기도, 과천시가 분담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해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산사태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illegible]기자

'때리는 남편·아내' 90명 구속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7~9월 3개월간 6배나 늘어

검찰이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과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가정폭력사범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7~9월 총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 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인원(4.8명)에 비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구공판 비율은 최근 5년 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남북 어울림 공연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2013 어울림 한마당에서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통일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7일 수능시험일 관공서 출근 1시간 늦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다음달 7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대중교통이 대폭 증편된다.

교육부는 27일 수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 소통, 소음 방지 및 문답지 수송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공서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기업체도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 시간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늘리고 모두 37회 증회 운행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당일에 시험장 200m 앞에서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돼 수험생들은 이 지점에서부터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40분까지 30분간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윤다혜기자 ydh@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무솔리니 로마 진군

1922년 10월 28일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무투리더 베니토 무솔리니가 사병 조직인 '검은 셔츠단' 4만여 명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했다. 파스타 임시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무력했고,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무솔리니를 수상에 임명해 그의 쿠데타를 용인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면서도 전리품 배분에서 소외되어 얻은 게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 개혁의 위기감 때문에 이탈리아 국민 들은 무솔리니의 쿠기를 지지했고 이탈리아는 이후 2차대전 패망까지 몰락의 길로 치달았다.

세계 해양사고 조사전문가 부산 모인다

MAIIF MAIFA 회의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파라다이스호텔서 연속 개최

세계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사고 조사의 국제적 표준화와 해양사고 조사 정책 등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MAIIF) 회의와 해양사고 조사 국제컨퍼런스 및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MAIFA)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열리는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에는 스티브 클린치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 의장(영국 해양안전조사국 수석조사관)을 비롯해 미국·영국·중국 등 30여 개 회원국 대표와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가한다. 이어 다음달 1일 열리는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에는 12개 회원국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다.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에서는 세계 표준화된 해양사고 조사 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도선사와 선장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토론도 벌어진다.

1992년 6월 창설돼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의 조사기관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회의와 연계해 진행되는 제2회 해양사고조사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해양사고 조사관과 연구자,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열린다. 해양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해양사고 조사 기법과 원인, 교훈 등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일 열리는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에는 해양사고 조사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 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 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사고가 났을 때 이 지역 국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결성된 협의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장근호 과장은 "이번 국제회의가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양사고에 대비한 공조 체제와 이 분야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뉴시스

캠퍼스 이모저모

부경대 중국 유학생 6명 삼성전자 중국법인 취업 부경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이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에 대거 취업해 화제다. 주인공은 부경대 한대룡(27 경제학부), 우우우(25 국제통상학전공), 곽이보(25 경제학부), 윤서(24 여 기계자동차공학과), 조혜천(24 여 영어영문학과), 강원(23 국제무역물류학전공 씨) 등 6명이다. 25일 부경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의 삼성반도체유한공사가 실시한 직원채용 서류심사 및 GSAT(외국인대상 삼성직무적성검사), PPT자기소개, 면접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중국 삼성반도체유한공사에서 근무하며 한국인 관리직원들과 현지 중국직원들 간의 연계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곽이보, 한대룡, 윤서, 조혜천, 강원, 우우우씨.

신라대 총동창회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신라대 총동창회는 지난 24일 오후 5시 교내 인문관 529호 원격강의실에서 이송희 부총장과 옥경숙 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2학기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총동창회는 이날 22명의 재학생들에게 2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거제 직행좌석버스 운행

내년 1월부터 10대 투입 요금 5400원 수준 전망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시의위원회는 지난 23일 부산 사하구에서 거가대교를 지나 경남 거제를 오가는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을 심의·결정해 양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 주민들은 저렴하게 부산과 거제를 오갈 수 있게 됐다.

25일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심의·결정한 바에 따라 운행 대수는 부산시 5대, 거제시 5대를 승인하되 9개월 내 거제시가 노선 개설을 안 할 경우 부산시에서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됐다고 밝혔다. 버스 5대의 배차 간격은 30분 정도이며 5대가 추가 투입되면 간격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직행 좌석버스는 준공영제를 제외하고 노선 개설 도입 초기에는 무료 환승제 적용도 배제토록 했다.

특히 중간 정류지를 부산 하단~명지신도시~신호~부울중기청~녹산산단~관포~외포~송정~거제 연초까지 운행토록 지정했다. 요금은 5400원 수준에서 두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운행은 두 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해소는 물론 두 지역권의 상생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1월 개통을 목표로 거제시와 협의해 운행 노선, 정류소 지정, 요금, 운행 개시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해 부산버스조합의 협조를 얻어 운행 업체의 차량 구입, 배차 시간 및 회차 장소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부산대 한의학연구센터 요추 임상 참가자 모집

부산대학교 한의학임상연구센터는 요추 수술 후 통증 및 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 모델 구축을 위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19~70세로 요추 수술을 받은 자 중 통증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번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척추 수술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재발된 환자로 통증이 최근 3주간 지속되고, 간헐적 의학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산대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임상연구를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 밖에 시험에 이용되는 모든 치료 및 물리치료 비용은 무료이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문의 055)360-5710 /정하균기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안전학교' 체험 행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원행[?])은 지난 25일 부산 영도 본원에서 부산 관내 고등학생과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안전학교' 체험 안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화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선박조종 시뮬레이터(Ship Handling Simulator)를 이용한 선박 운항 간접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마련됐다.

한국해양대 하지민 요트 金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관리기술학과에 재학 중인 하지민(사진)씨가 지난 23일 인천 중구 왕산요트경기장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요트 일반부 국제레이저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로써 하씨는 이 종목에서 2009년 이후 전국체전 5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동의대 직원 교육부장관상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인 은다현(사진)씨가 지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막식'의 산학 협력 유공자 시상식에서 산학 협력 분야 발전, 연구 성과물의 권리화 및 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금투협 '업종분석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내달 21일부터 금융투자회사 영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상담을 위한 업종 분석 과정'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과정은 올 연말과 내년 주요 산업(업종)별 전망 및 기업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주식투자 상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나 전화(051-867-97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속 '독일국립대 FAU'

다음달 1일 캠퍼스 오픈행사 및 이공계생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독일 국립대학 FAU 부산캠퍼스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FAU 부산캠퍼스에서 국내 우수 이공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학교 홍보 영상 자료, 프레젠테이션, 캠퍼스 투어 및 개별 면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시설명회에는 FAU 부산캠퍼스의 교수들도 참여해 입시 관련 정보는 물론 독일식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진로 등에 관한 설명이 진행된다. 독일 교수들과의 직접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독일식 식사와 맥주, 기념품 및 경품도 제공된다.

또한 현재 참가자들은 FAU 부산캠퍼스 재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와 교육과정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FAU 부산캠퍼스는 부산에 설립된 제1호 외국 교육기관으로 아시아에 진출한 첫번째 독일 대학교다. 독일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 동일한 교수진으로 구성돼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졸업생들에게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학하는 모든 한국 국적 학생은 한국 정부 또는 독일 학술교류재단에서 입학금에 해당하는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성적 장학금과 부가적인 연구 장려금을 별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학은 독일 교육 시스템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에 기업와 인턴십이 의무 학점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FAU 부산캠퍼스 재학생들은 독일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인 바이엘, 베링거인겔하임, 지멘스, 주드주커, 크로네스 등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학 설립 초기에 독일 정부, 한국 정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독일 및 유럽, 미국 등에서 최신 연구 장비를 들여와 우수한 FAU 기술을 활용해 완벽한 유럽식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AU 부산캠퍼스 백승호 홍보실장은 "참가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당일 오후 1시에 부산역광장 주차장에 FAU부산캠퍼스 학교버스를 마련해 부산지역은 물론 타 지역 참가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봄학기 접수 기간은 독일 본교와 동일하게 2014년 1월 15일까지로, 원서는 FAU 부산 홈페이지(www.fau-busan.ac.kr) 및 e-메일(studies@busan.fau.de)로 접수 받는다. 문의 (051)899-8000

/장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광안리 불꽃축제장 뜬 대선주조 "즐거워예~" 지난 26일 부산 대표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가 제9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플리커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대선주조 측은 다양한 기념품 및 대선주조의 주력 상품인 시원, 시원프리미엄, '즐거워예' 미니어처 소주를 증정해 눈길을 끌었다. /장하균기자

불꽃에 홀린 가을밤 지난 26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부산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BN그룹 31일까지 공채 접수

매년 80명 규모 채용…올핸 100여명으로 확대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 BN그룹이 올해 하반기 관리직 사원 공개채용 계획을 밝혔다.

BN그룹은 오는 31일까지 '2013년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50명 선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BN그룹은 올 상반기 40명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 50여 명을 채용, 올해 약 100여 명의 청년 인력을 취업시킨다.

이는 불투명한 경기 전망 등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부산 지역의 신규 채용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의제 BN그룹 회장은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지역 기업이 상생한다는 그룹 경영 방침에 따라 올해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비아이피㈜와 대선주조㈜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와 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대선주조는 저도 소주 확대 판매 신장과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해 마케팅 및 연구 인력을 이번 공채를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접수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로 BN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BN그룹 홈페이지(www.bn-korea.com)를 참조하면 된다. /장하균기자

101층 엘시티 방재도 '매머드급'

샌드위치 가압방식 도입에 소화수 3시간 확보 등 화제

101층 규모로 연내 첫 삽을 뜰 예정인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는 방재시설도 매머드급으로 갖출 전망이다.

높이가 411m에 달하는 랜드마크 타워는 물론 주거 타워 2채도 333~339m로 초고층이어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부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소방서가 최근 전국 처음으로 초고층 건물의 재난을 전담하는 '센텀 119 안전센터'를 개청했지만 초대형 굴절 사다리차가 미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70m에 그친다.

27일 엘시티 설계에 참여한 삼우설계와 한방유비스에 따르면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고 비상계단을 2개 갖추는 것은 초고층 건물 설계의 기본이다.

또 불이 났을 때 해당 층에서는 연기를 강제로 배출하고 위아래층은 압력을 대폭 높여 연기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등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이중으로 깔고 화재 시 20분 이상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소화용수도 최장 3시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게다가 불이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화재 발생 때 창에 수막을 형성하는 '윈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또 각층 발코니에서 위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계단도 추가로 갖춰진다.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엘시티에는 소방설비에도 내진설계 개념을 적용했고 지진계, 풍향계, 풍속계까지 갖춘 종합방재센터 3개가 비상사태 시 서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합뉴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표
사장·편집인	김휘락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지국	김광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0-2800
독자센터	02)721-9788

2002년 5월 31일 창간,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가00206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34.35 (-12.30)	534.02 (+2.99)	2.50 (변동 없음)	1092.00 (변동 없음)

뉴스&뉴스

"마트서 심봤다!" 27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모델들이 6년근 인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30일까지 전북 진안산 6년근 인삼 750g 1채를 시세보다 45% 가량 저렴한 5만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현오석 "경기 턴어라운드"

정부가 올해 3%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자신하고 나섰다.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대 성장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를 기록해 경기 회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4분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경기 흐름이) 턴어라운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실명법 과태료 평균 159만원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 거래 사건 278건 중 61.9%(172건)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실명제 위반 1850건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액은 29억3500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이 159만원에 불과했다. /김민지기자

낙제' 사업에 혈세 11조 더?

정부가 낙제점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의 예산 11조2455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한국시리즈 3차전에 뜬 두산-삼성 오너

두산과 삼성의 한국시리즈에 박용만(왼쪽 사진) 회장과 이재용(오른쪽) 부회장도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의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에 양 팀의 오너 경영인이 총출동했다.

두산 박용만 회장은 이날 일반 VIP석이 아닌 일반석에서 팬인경을 들고 등장했다. 박 회장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야구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회말이 끝난 후 딸과 함께 야구장에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박 회장의 아들 박진원 부사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정용환기자 yetoo@

공무원 채권형…직장인 주식형

김민경 "개미가 만난" 금융가 사람들

■ 한국투증 은퇴설계연구소 김지희 수석연구원

"직군별 인적자산 특성 고려해 노후자금 굴려야"

은퇴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금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은 '적합한 상품을 고른 것인가'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란 점이다.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는 자사의 연금 관련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을 위해 개인 투자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형, 연금저축 등의 유형별 수익률과 가입자 동향, 수천 포트폴리오 전략을 분석해준다.

연구소의 김지희(사진) 수석연구원은 지난 24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자금 마련 시 자신의 나이와 직업의 특성을 자각해야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5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산의 투자 가능 기간과 앞으로 가능한 근로소득의 규모를 따져 공격적인 투자를 할지, 안정적인 투자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직업별로 투자자를 주식형 인적자산과 채권형 인적자산으로 나눈 점이 흥미롭다. 김 연구원은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금융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인적자산은 채권과 가깝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장인 등은 주식과 가깝거나 투기등급의 채권(하이일드)과 유사하다.

따라서 직업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채권형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은 반면, 주식형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필요가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권형 직업군일수록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주식형 직업군인데 적극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려면 자신의 인적자산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전체 연금저축 펀드 가입자의 53%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고 해외 주식형은 16%였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약 70%가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해 분산 투자를 하는 비중은 5%에서 16.2%로 훌쩍 뛰었다.

김 연구원은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식형으로 굴리고 있다면 투자 손실 발생 시 만회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투자 위험이 낮은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iked@metroseoul.co.kr

핼러윈 파티를 상큼하게! 27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여종사이더 써머스비 모델들이 블루디 플루커스 Bloody Flukers 핼러윈 파티 공식 후원을 기념해 써머스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써머스비는 알코올 함유량 4.5%의 애플 사이더로 청량감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써머스비 제공

'외국인 구애주' 주가 싱글벙글

'41일 매수행진'에 삼성전자·하이닉스 11~13% 상승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40거래일 이상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낸 종목들의 주가가 순항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 8월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41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갔다(종가매매 기준). 이로써 역대 최장 순매수 기록(종전 34거래일)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매수액은 13조5095억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쓸어담은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3조5967억원)였다. 이어 SK하이닉스(1조6371억원)와 상장지수펀드(ETF)인 코덱스200(1조5967억원)이 뒤따랐다.

현대차(9072억원), 네이버(8132억원), 포스코(6620억원), 기아차(3973억원), SK텔레콤(3925억원)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외국인들의 선호주였다.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의 주가도 대체로 올랐다.

지난 25일 삼성전자의 종가는 144만9000원으로, 바이 코리아가 시작되기 전인 41거래일 전(129만5000원)에 비해 15만4000원(11.8%) 올랐다.

SK하이닉스(2만8500원→3만2600원, 14.3%), 코덱스200(2만4215→2만6670원, 10.1%), 현대차(22만8500→25만8500원, 13.1%) 등도 상승했다. /김현정기자

저축의 날 반세기 바닥기는 저축률

'저축의 날' 50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가계 저축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은행의 총 예금은 993조3406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금액으로만 비교하면, 저축의 날이 도입된 지난 1964년(431억원) 이후 2만3000배 늘어났다.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정기예금은 35.7 44억원에서 현재 572조239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3.4%로 곤두박질쳤다.

1960년대 5%대에서 1988년 24.7%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해 급락한 수준이다.

다른 기준으로도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OECD의 25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했다. /김현정기자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찢혀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뒤 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하나.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자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처음에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SNS 피라미드' 시대

'친구 추천할수록 혜택' 마케팅…'SNS 피로도'의 원인 지적도

"친구가 아이템을 선물했어요.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게임 초대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소식이 뜸한 친구로부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가운 옛 연락 메시지가 속속 날아온다.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피라미드 마케팅은 모바일게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 중이다. 27일 구글플레이 기준 최고 매출 상위 30위 무료 애플리케이션 중 80%가 카카오톡 게임일 정도다. 모바일 메신저 기반 게임은 이용자들이 연락해 게임에 참여하거나 아이템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친구 초대 횟수가 많을수록 아이템 혜택도 늘어나는 다단계 마케팅도 특징이다.

최근 '포코팡'을 카카오 게임하기로 출시한 NHN엔터테인먼트의 황현돈 과장은 "모바일게임에서 소셜네트워크는 흥행의 필수 요소"라며 "혼자 해도 재밌지만 친구와 같이하면 더 재밌다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템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지만 지인을 많이 초대할수록 순위가 오르고 사이버 머니도 많아진다는 게임 설정이 승부욕과 게임 재미를 배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기업에서도 이용자가 홍보물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증샷을 찍어 SNS에 등록하면 경품을 주는 마케팅을 시행한다. 이때 친구에게 게시물을 추천하거나 공유하는 횟수가 늘수록 혜택 규모도 커진다. 다만 이 같은 피라미드 마케팅이 SNS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이용자는 "낯선 사람의 초대 메시지가 스팸 메일처럼 여겨진다"면서 "내 SNS가 타인의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종종 하다"고 전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할러윈 마녀" 준비됐나요? 27일 서울 홈플러스 목동점에서 모델들이 할러윈데이 분장을 하고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 할러윈데이를 앞두고 25만개의 용품을 준비해 할러윈 바구니 1000원 짜리 2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현대·기아차 좀 더 달리면 '세계4위'

올들어 글로벌시장 점유율 8.8% 연말 르노닛산 제치고 도약 전망

현대·기아자동차가 정체를 딛고 세계 4위 언제에 오를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총 552만4000대의 차량 판매를 보이며 미국 시장조사업체 LMC 오토모티브 집계 기준 8.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점유율 5.5%과 3.3%를 보이며 4년째 8%대의 총 시장 점유율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까닭이 3분기 연쇄 파업으로 물량 공급 차질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과 9월 파업으로 2조원대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낮아진 수익과 가격과 신흥시장 위협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대·기아차가 해외 공장 증설에 힘입어 연말까지 9% 점유율을 달성해 르노닛산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4위 업계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illegible] 기자

LG디플 영업이익률 '호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수익성 격차가 줄어들었다.

27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매출액 8조900억원, 영업이익 9800억원을 거뒀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같은 기간 매출액 6조5900억원, 영업이익 3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2.1%, 5.9%를 기록하며 전분기(삼성디스플레이 13.7%, LG디스플레이 5.6%) 대비 영업이익률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매출액은 양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에서 차이를 좁힌 결과다. 삼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2.5% 줄었으나 LG디스플레이는 6.4%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는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는 '갤럭시노트3'와 LG 'G2'의 판매 성적이 양사의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legible]

갤S4 보조금 '온라인 활개'

방통위 단속 사각지대…이통사별 최대 71만원 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엇나간 불법 보조금 행위에 최근 현장 실사를 통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3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꼽힌 KT에 영업정지 7일 등 이통 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잠시 주춤했던 과다 보조금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자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방통위 경고를 의식한 듯 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행위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활개 치고 있다.

이날 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선 올 4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4를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할 경우 5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T끼리 35' 요금제(3만5000원) 2년 약정 이용 시 요금제 할인 18만원이 더해져 이용자는 총 7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6월 출시된 '갤럭시S4 LTE-A'에는 이보단 다소 낮은 3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LG전자 'G2'에는 47만원, '옵티머스G 프로'에는 56만원, 지난달 출시된 '옵티머스뷰3'에도 32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최소 5만~29만원까지 넘어선 것이다.

또 다른 온라인 판매 사이트 역시 갤럭시S4에 64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89만9800원의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요금제 할인을 더하면 7만원 정도의 금액을 기기값으로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판매점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휴대전화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한시라도 빠르게 기존 재고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본사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이통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입자 유지를 위해 승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르완다에 'KT 전시관' 떴다 KT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TAS 2013 행사를 르완다 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KT 신입사원과 르완다의 현지 대학생으로 구성된 전시요원이 TAS 2013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KT 출시 제품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다. /KT 제공

크레용팝 "프리스타일 풋볼 함께 해요"

온라인 축구게임 캐릭터로

'프리스타일 풋볼'에 크레용팝이 떴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 축구게임 '프리스타일 풋볼'에서 31일 인기 걸그룹 '크레용팝' 캐릭터 출시를 시작으로 하반기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

미쓰에이, 소녀시대, 씨엔블루 등 인기 스타들을 게임 캐릭터로 선보여 호응을 얻은 프리스타일 풋볼은 새로운 캐릭터로 '빠빠빠' 열풍의 주인공 크레용팝을 공개할 예정이다.

크레용팝은 전매특허 '직렬 5기통' 댄스와 헬멧 패션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각 멤버 고유의 모션과

음성을 담은 캐릭터로 이용자들을 찾아간다.

대규모 업데이트에서는 개발진이 오랜 기간 준비한 새로운 게임 모드 '슈퍼매치'·'챌린지 리그'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연승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추가된다.

아울러 엔트리브소프트는 11월 17일까지 크레용팝 캐릭터 출시를 블로그나 기타 사이트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크레용팝 사인 CD, 크레용팝 사인 축구공을 증정한다.

이용자는 게시한 곳의 링크를 프리스타일 풋볼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할 수 있다.

국내면세점 이용액 중국인>한국인

올해 첫 추월…일본인 3위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국내 면세점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관세청이 국회 재경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국적별 국내 면세점 이용액은 중국인이 8억6338만 달러로 8억4575만 달러인 한국인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어 일본인 1억9639만달러, 미국인 2240만 달러, 대만인 607만 달러, 태국인 215만 달러, 기타 국적 1억921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에서 저가 여행상품과 쇼핑 강요를 엄격히 금지한 '여유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줄고 있다. /[illegible] 기자

마구마구 2013' 시즌2 시작

CJ E&M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야구게임 '마구마구 2013'이 시즌2 업데이트로 새롭게 변신했다.

이번 시즌2 첫 번째 업데이트에는 ▲메인 메뉴 전면 개편 및 이용 시 편의도 개선 ▲상점 리뉴얼 ▲소셜포인트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2차 업데이트도 준비 중이다.

'마구마구 2013'은 지난 4월 출시해 모바일 스포츠게임으로는 처음으로 출시 3주 만에 4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바 있으며 출시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0위권 내에 올라있다.

뉴스 & 뉴스

"지주회사도 예외없이 규제"

●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지주회사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전까지는 시끄러웠다가 예고하고 나서는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며,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 기업이 아니면 쓸 수 없으니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면서 "다만 임대료 수익은 계열사로부터 특별히 비싸게 받으면 부의 이전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legible] 기자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2위'

●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 분야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유대전화 출하량 세계 1위, 반도체 매출액 2위, 선박 수주 건조량 2위 등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자동차 생산 대수는 5위, 타이어 매출액 7위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했다.

다만 노동·사회 분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29명으로 최저 수준이었고 연간 노동 시간은 2위로 노동 대비 복지도 열악했다.

/[illegible] 기자

'주인 손' 느끼면 주인도 모르게 잠금해제

IT리뷰/아이폰 5S

지문 최대 5개 등록가능 … 야경·연사 등 카메라 진화

"아이폰만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과연 맞을까."

25일 국내에 상륙한 아이폰5S를 직접 만져봤을 때 든 의문이다. 전문가들의 혹평과는 달리 애플 특유의 깔끔하고 섬세함이 아이폰5S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최대 손가락 5개를 등록할 수 있는 지문인식 기능. 홈 버튼에 탑재된 이 기능은 사용하기 불편할 것이란 선입견과는 달리 아이폰5S 사용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지문을 등록하는 데는 1~2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후부터는 지문을 인식하는지를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잠금이 해제된다. 익숙해지면 전원 버튼을 누르는 대신 홈버튼을 살짝 눌렀다가 뒤을 뗀 다음 버튼에 손가락을 그대로 얹어놓기만 해도 바로 아이폰5S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기능은 앱스토어를 사용할 때도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지문인식으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카메라 성능도 놀랄도록 개선됐다. 화소 수는 800만 화소로 아이폰5와 동일하지만 센서의 크기가 15% 커진 데다 노란 계열 LED를 추가한 듀얼 플래시를 채택해 어두운 곳에서도 보다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실제로 반암중에 사진을 찍어보니 마치 최고급 DSLR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자연스럽고 풍성한 화질이 나와 놀라울 정도였다.

새로 추가된 연사 기능도 기존 스마트폰에서 보기 힘든 기능이다. 촬영 버튼에 손을 대면 1초에 10장씩 최대 999장까지 연사로 찍을 수 있다. 찍은 사진을 관리하는 것도 편하다. 아이폰5S가 자동으로 가장 잘 표현된 사진을 골라주고 필요없는 사진은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슬로모션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 것은 64비트 A7 프로세서를 탑재한 덕분이다. 속도가 2배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효율까지 향상됐다. 특히 애플이 무료로 제공 중인 'X코드'를 이용하면 기존 32비트 앱을 64비트로 전환시키는 데 채 2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아이폰5S에 담긴 또 하나의 칩 M7도 스마트폰 생활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동작을 인식하는 이 보조 프로세서는 쉬고, 걷고, 달리고, 운전하고, 자전거를 타는 다섯 가지 동작을 자동으로 인식해 맞춤형 일처리를 해준다. 예를 들어 아이폰5S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내리면 바로 보행자용 길 안내로 바뀐다.

화면 크기가 작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아이폰5S로 보여준 애플의 혁신 크기는 생각보다 컸다.

/이국명기자

예플 아이폰5S의 지문등록 화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국가안보국 NSA의 의회 조사를 촉구하며 NSA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10년 넘게 메르켈 감청

야당 당수 시절부터 올 6월까지…美 "지금은 안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장기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입수한 기밀 문서를 인용,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가 2002년부터 NSA의 감청 표적 명단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하기 직전까지도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가 감청됐다고 슈피겔은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야권 정치인 시절부터 NSA의 감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0년 독일기독교민주동맹(CDU·기민당)의 첫 여성 당수가 됐고, 2005년에는 총리로 선출됐다.

2011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백악관은 "현재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감청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과거의 감청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NSA 도청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물론 프랑스와 멕시코, 브라질에서도 미국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아직까지 프랑스와 멕시코 등지에서 불거진 감청 의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슈피겔은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제공한 기밀 파일을 토대로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법 감청 의혹을 보도했다. 슈피겔이 입수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베를린 중심의 미국 대사관에 첨단 장비를 설치, 독일 정부청사를 감청했다.

또 NSA와 CIA는 베를린 이외 세계 80여 개 지역에도 무단 감청 시설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는 감청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中 전투기 연이틀 오키나와 접근…日자위대 긴급 발진

중국군 항공기 4대가 25일, 26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를 왕복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잠잠했던 중·일 관계에 또다시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는 중국군 항공기 2대가 26일 오키나와와 본섬을 지나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왕복 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군 항공기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등장하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 나하기지에서 소속 전투기를 긴급 발진, 맞불을 놓았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일본방위당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동중국해에 항공기를 자주 출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국방부의 겅옌성 대변인은 26일 "일본이 중국 무인기를 격추할 경우 일종의 전쟁 행위로 간주해 즉각 반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조선미기자

남미인 최초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티실레마 인터뷰

에콰도르 출신의 세계적인 산악인 파트리시오 티실레마가 최근 남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다. 산악가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카메라 한 대였다. 평생 꿈을 꾸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그를 25일(현지시간) 메트로 에콰도르가 만나봤다.

日 후지산에 반해 고산 도전

metro Ecuador

-어떻게 산악인이 됐나

▶비행기를 타고 일본 후지산 위를 날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 저기 정상에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후 단체 여행객의 가이드로 후지산 정상에 올랐다. 그때부터 산악인이 된 것 같다.

-첫 번째로 등정한 산은 어디였나

▶열아홉 살 때 에콰도르 북쪽에 있는 푸아푸야산에 올랐다.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그렇게 가슴 벅찼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정상에서 나 자신과 3가지 약속을 했다. 에베레스트를 산소호흡기 없이 정복하고, 2개의 직업을 갖고, 5개의 언어로 말하기.

-세 가지 모두 달성했나

▶현재 산악인과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모국어인 스페인어 못지않게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으니 나 자신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기분은 어떤가

▶우선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다. 거대한 산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든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항상 기도를 한다.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산악인으로서 두려운 것도 있나

▶처음에는 어둠이 무서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었다. 가끔은 거센 바람과 떨어져 내리는 눈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놀랄 때도 있다.

-지금까지 총 몇 번이나 산에 올랐나

▶대략 3000번은 산에 오른 것 같다. 코토팍시산(에콰도르에 있는 산)은 400번 정도 오른 것 같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지금까지 총 3만 2000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진전도 열고 싶다. 세계 20여 도시의 야경을 찍은 사진전을 열게 될지도 모르겠다. /가브리엘라 녹카 하라미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카렌스 사양·가격 '다이어트'

미니 '페이스맨' 래핑 예술이네

BMW의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가 연말까지 유명 디자이너 부부 '스티브제이 앤 요니피'와 함께 미니 페이스맨에 대해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27일 미니에 따르면 영국의 명문 패션학교 '센트럴세인트마틴스예술대학교'를 한국인 최초로 수석 졸업한 이들은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해졌다.

이 부부는 미니 슬로건 '평범하지 않다(NOT NORMAL)'에 맞게 미니 페이스맨을 디자인, 래핑했으며 12월까지 직접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미니의 비범한 스타일을 알린다.

미니는 콜라보레이션 차량과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를 한정판으로 제작해 다음달 미니 페이스맨 계약 고객들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비인기 옵션 확 줄인 2014년형 연비·첨단기능은 업그레이드

가격과 사양을 확 다이어트한 '2014년형 올뉴 카렌스'가 출시된다.

기아자동차는 옵션을 줄여 가격을 대폭 낮춘 미니밴 올뉴 카렌스를 28일부터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비인기 옵션을 대폭 없애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모델별로는 LPI 및 디젤의 최고급 모델인 '노블레스'의 경우 고급형 오디오, 동승석 통풍 시트 등 일부 사양을 빼면서 값은 각각 220만원, 225만원 인하됐다. LPI 및 디젤의 '프레스티지' 모델도 2열 수동 선커튼, 발광다이오드(LED) 사이드 리피터 등 사양을 일부 조정하면서 각각 145만원~150만원의 가격을 낮췄다.

기아차 관계자는 "카렌스 고객층이 고급 옵션보다 경제성에 민감해 효율적 모델로 재탄생시켰다"면서 "옵션은 제거했어도 연비를 높이는 첨단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말했다.

올뉴 카렌스의 디젤 모델에는 고급형 ISG 시스템을 탑재한 '에코 다이나믹스' 트림을 추가해 기존 모델보다 0.3km/ℓ 향상된 14.0km/ℓ 연비를 구현하게 됐다. ISG는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할 때 엔진이 멈췄다가 출발하면 다시 시동이 켜지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공회전을 줄여준다.

한편 외장 색상으로는 감각적인 '인페르노 레드'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판매 가격은 2.0 LPI 모델은 럭셔리 1980만원, 프레스티지 2155만원, 노블레스 2375만원이다. 1.7 디젤 모델은 럭셔리 2095만원, 프레스티지 2270만원, 에코 다이나믹스 2370만원, 노블레스 2490만원이다. /장은희기자

라바 제작사 투바앤 '제1회 창작 애니 공모전'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라바'를 만든 제작사 투바앤이 '제1회 대학생 창작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연다.

애니메이션 업계 발전과 신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코믹 단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형식 및 제작 방식(2D, 3D, 플래시, 클레이 등)의 제한이 없다. 열정과 끼가 있는 국내외 대학(원)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신성, 독창성, 적합성, 완성도 등 요소별 종합적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가릴 예정이다. 대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수상자 700만원, 최우수상인 대종기획 대표이사상 수상자 500만원 등 총 상금 2100만원이 걸려있다.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12일간 공모전 운영 사무국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 투바앤 애니메이션 공모전 홈페이지(www.tubancontes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소외계층 어린이 문화체험 돕는 현대차그룹 '토요 아트 드라이브'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6월까지 두 학기에 걸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2013 현대자동차그룹 토요 아트 드라이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년째 열리는 이 행사는 주말 여가 활동이 어려운 전국의 저소득층 어린이 5000여 명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대상 아동센터를 120곳에서 200곳으로, 문화·예술단체는 18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 /정윤희기자

남자 속옷 벗기는 고아라… '실제 남편 누굴까' 궁금해… 삐삐 등 추억 '새록새록'…

'응사' 2주만에 4% 넘었다

<응답하라 1994>

응칠앓이 뒤이었는 '응사앓이' 신드롬 일으킬까.

지난해 복고 열풍을 일으킨 tvN '응답하라 1997'의 후속편 격인 '응답하라 1994'가 방영 2주 만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전편이 1990년대 아이돌 그룹의 소녀 팬들 이야기였다면 이 드라마는 1994년 과거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지방생들이 서울 신촌 하숙집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상경기를 2013년 현재와 오가며 그린다.

삐삐와 설레는 첫사랑 등의 소재로 90년대 복고 감성을 따뜻하게 전달하며 공감대를 자아냈고, 과거 저마다 독특한 다섯 명의 남자 하숙생 중에서 성나정(고아라)의 현재 남편을 찾아나가는 추리 코드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탈레반다미 남자의 팬티를 벗기고 누워서 짜장면을 먹는 등 털털하지만 사랑스러운 스무 살 경상도 여자 성나정을 연기하는 고아라의 열연도 재미를 배가시켰다. 소속사 관계자는 "고아라가 드라마 시작 몇 달 전부터 사투리를 연습하고 머리 모양은 일부러 더 엉기뜨리는 등 열심히 준비했다"고 노력을 설명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 속에 시청률 역시 방송 2주 만에 4%(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를 돌파했다. 26일 방영된 4화는 평균 시청률 4.2%, 순간 최고 시청률 5.4%를 기록하며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촌지는 없다

임경선의 모놀로그

초등학교 원서 접수 시즌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초등학교 입문서를 사서 읽고 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궁금한 예비 학부형과 현직 교사 간의 질의응답 섹션이 있는데 그중 흥미로운 질의응답이 있었다.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 현직 교사의 답은 "기본 예의를 지키는 자세면 충분하다. 하지만 정 챙기면 음료수나 작은 간식"이라 답하고 "스승의 날 선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라는 또 다른 질문에는 "작은 선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그래도 선물을 선하고 싶다면 스승의 날 전이나 후에 하자. 특기맡 강사의 몫은 초콜릿 등 작은 선물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인 답변은 고맙지만 교육적인 의미를 고려해서라도 딱 잘라 '필요 없다' '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면 안 됐을까.

예전에 비해 이젠 촌지를 많이들 안 주고받는다지만 그래도 예비 학부형 입장에서 간간이 들리는 '일단 주고 나면 반응이 확실히 달라진다'와 '막상 내 자식 문제로 다가오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편치는 않다. 인근의 연기 사립초등학교만 봐도 유명한 이유가 '촌지가 없다'라는 것도 마뜩지 않다.

어찌 되었든 내년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지인 예비 학부형들과 더불어 절대 촌지나 선물을 주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또한 주변에서 봤거나 목격하면 즉각 교육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요즘 촌지 받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학부형들도 그 악습을 계승하지 않도록 피차 힘쓰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의 이런 쓸데없는 불안이 아주 옛날이야기이길 바라고 아마 그럴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성의껏 일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입장에선 이런 불안하고 미심쩍은 학부형의 시선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는가.

/칼럼니스트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8	7				
4		5						1
8	5	9		4				
			5		3		6	
7	6			9			8	
5					8	7		
	8		7		2			
2		7	1		9	3		

	4						6	
1			6		7			8
		6	4		2	5		
	6	8		4		1	2	
			2	7	1			
	5	1		6		4	7	
		7	8		6	9		
6			3		5			7
	1						3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봇뉴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개럴리 테이터 리미티드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 533-8977
www.saju4000.com

사업 시원치않아 귀농 고민중 서울서 새로운 사업 도전해야

대남2 남자 61년 양력 4월 15일

Q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해 농사를 지으며 노후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그냥 도시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아 여유는 있습니다.

A 운세가 건재와 함을 하여 다른 사업을 하다 올라오는 재물을 모두 탕진할 수 있어 어떤 때에는 재물을 땅에 묻어두어야 하므로 은연중에 귀농해서 농사지을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로 가면 무조건 좋을까요? 술 담은 항아리는 석정으로 인한 곤란을 예고하니 이상에 대해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일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골 생활에 경험 없이 귀농을 꿈꾸는 것은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서울 올라와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어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서서히 새로운 사업 구상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게 될 것이니 설계를 들어려면 늘 열어보시고 도전하십시오.

진정서 고향 내려와 살라는데 재산 반토막에 집안싸움 우려

hyrin 여자 54년 음력 10월 1일 오후 8시

Q 졸혼하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뜨는 바람에 아이도 없습니다. 서울에 집은 없고 2층짜리 작은 건물에서 전세가 다와 먹고사는 것은 문제 없는데 친척식구들이 고향에 내려와 살라고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내려가 살아도 될까요?

A 2017년부터의 운세가 사주 중에로 상관에 개성의 좋이라 합니다. 상관은 자식이며 재성은 별 그대로 재물입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조카들로 보면 될 것인데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 원하다가 재물이 반 토막 다게 됩니다. 2018년 서서히 관관합살의 움직임이 일어나니 2021년 상관에 관재가 생어 친척들과 집안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장이나 혈압질환을 유의해야 하는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전정으로 내려가면 회복으로 굴복까지 안습니다. 누구나 재산이 있어야 큰소리를 칠 수 있으므로 손 쥠에서 뭐라 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세요. 가끔 전정에 가서 쉬다 오는 것이 삶의 윤택함을 더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8일 (음 9월 2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공들인 일은 결실 맺는다. 60년생 사람 소개하는 일은 신중할 것. 72년생 부탁할 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성과 있다. 84년생 매를 맞을 땐 먼저 맞아라.

소 49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은 독. 61년생 겉치레으로는 힘드나 마음은 편안. 73년생 도움받더라도 숨거라. 85년생 오늘의 꿀짝는 성공의 예방주사가 된다.

호랑이 50년생 남동쪽으로 가면 웃을 일 생긴다. 62년생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 빼라. 74년생 명분에 집매이면 상황 어렵게 된다. 86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감동.

토끼 51년생 자손이 머리둬도 자리지심은 금물. 63년생 박수받을 일 생긴다. 75년생 동개하는 일은 오메 안 시도록 조심. 87년생 지나치게 야무지면 점수 잃는다.

용 52년생 배우자와 행복한 추억에 빠진다. 64년생 눈치가 보이도 담담하게 처신하라. 76년생 적당한 고집은 존재감 높인다. 88년생 검거망도 뭘고 분수 지켜라.

뱀 53년생 약금 셀한 이웃의 악수는 받아들여라. 65년생 기는 날이 장날인 게이다. 77년생 변수가 있어도 계획대로 하라. 89년생 연인의 색다른 서의에 기대 크다.

말 42년생 잠안의 먹구름은 곧 물러난다. 54년생 능력에 맞지 않는 지출은 억제하라. 66년생 작은 것이 다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78년생 시키는 일만 하지 마라.

양 43년생 지가운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5년생 어매하는 기대 이상의 미득 생긴다. 67년생 횡재수 있으니 로또라도 사라. 79년생 배우자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

원숭이 44년생 오라는 곳 많아 바쁘다. 56년생 친한 벗 문상 갈 일이 생길 수도. 68년생 어려운 일이 성사돼 만사 풀린다. 80년생 아슥한 연인이 눈물짜다 웃게 한다.

닭 45년생 건강 회복돼 자신감 커진다. 57년생 많은 청약한 결실 안긴다. 69년생 변수 심하니 순간순간 최선 다하라. 81년생 부모에게 웃음보따리 선물할 수 있다.

개 46년생 이사 간 사람 근천된다. 58년생 고민은 단순하게 생각하라. 70년생 배우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82년생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뿌리하라.

돼지 47년생 낮 뜨거운 칭찬에 우쭐. 59년생 허서 부리면 자들만 늘어난다. 71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뿌리를 내려라. 83년생 기슬 두근거리게 하는 이성이 나타난다.

‘임자있는 남자들’ 부담없어 땡큐!

영화 ‘톱스타’ 박중훈 감독의 첫 히로인 소이현

요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소이현(29)이 박중훈의 감독 데뷔작 ‘톱스타’로 7년 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했다. 극중 미모의 제작자 역할을 맡아 섹시한 매력을 뽐낸 그는 “오랜만의 영화 출연은 재미있고 행복한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안방서도 영화서도 톱스타 옆엔 늘 그녀가 있다?

연예계를 배경으로 매니저에서 톱스타로 성장한 한 남자의 성공과 욕망, 추락을 그린 이번 작품에서 뛰어난 사업 수완과 미모를 겸비한 영화·드라마 제작자 미나 역을 열연했다. 현재 진행 중인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올해는 스타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과 유난히 인연이 깊다.

이 말에 그는 본인이 톱스타이면서도 “톱스타를 옆에서 지켜보면 재미있고 신기하다. 나도 이쪽 일을 하지만 늘 다른 스타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연예계 뒷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곤 한다”며 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 연기 경력 30년 대선배의 OK 사인 천군만마

이번 배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톱스타 못지않은 외모에 성격과 능력까지 모든 게 완벽한 미나를 어떻게 관객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표현하느냐였다. 특히 연기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박중훈 감독 앞에서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나리오를 받기 전부터 덜컥 겁이 났다.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우는 전혀 없었어요. 박 감독님이 연출을 처음 한다고 해도 어떤 스태프보다 영화를 잘 아는 분이니까요. 다만 대배우 앞에서 어떻게 ‘OK’ 사인을 받아내느냐는 걱정이 컸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든든한 연기 멘토가 돼주셔서 7년 만의 영화 출연에 대한 두려움까지 덜어냈어요.”

◆ 후아유 뭐 달라진 점? 때연이 대신 감독님이 분위기 메이커

전작인 케이블 tvN ‘후아유’에서 옥택연, 김재욱과 호흡을 맞추다 이번에 엄태웅·김민준과 함께 연기했다. 제작자이면서도 톱스타 원준(김민준)의 오랜 연인이자 매니저에서 톱스타가 된 태식(엄태웅)이 욕망하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분했다.

“전엔 보기만 해도 사범했는데 지금은 척척해졌다. 그래도 임자 있는 남자들이 연기하기 편하다”고 농담하면서 “택연이는 보기와는 다르게 소녀 감성을 가졌다. ‘계집애’라고 놀리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말했다.

◆겉으론 시크 실제론 소탈 ‘깡’으로 버티는 근성女

시크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지만 실제 성격은 예민하고 소극적인 대개의 여배우들과 달리 털털하고 소탈하다. 술자리도 좋아하고 술도 센 편이다. 여리여리한 외모와 달리 지난 2년 반 동안 1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성도 있다.

“극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연예계는 냉정하고 비정해요. 이곳에 있으면 많은 걸 얻기도 하지만 잃기도 하죠. 전 친구들, 가족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20대의 시간들을 잃은 게 가장 아쉬워요. 하지만 그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 2년간은 쉬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깡으로 버텼죠.”

◆소이현에게 행복이란 “연기할 수 있어 감사한 것”

지금은 치열하게 보낸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다. 예전엔 살아남기 위해 조바심이 났다면 지금은 이렇게 큰 탈 없이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스타가 아닌 배우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연기 욕심만큼은 많은 듯했다.

“데뷔 때부터 제 롤모델은 톱스타 언니들이 아닌 나문희·윤여정·강부자 선생님이었어요. 스태프들로부터 ‘넌 너무 욕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실은 그게 가장 야망이 큰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연기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시어코메스를 한번 연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기자(로드리에이블) 디자인/박**지

영화 속 비정한 연예계
실제와 큰 차이 없어요
내 목표는 롱런 여배우
나문희·윤여정 선배처럼

star bag

'나인' 美버전 프로듀서 참여

배우 **김윤진**이 케이블 tvN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에 기획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리메이크 버전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미국 드라마 '가십 걸'을 제작한 페이크 엠파이어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해 지상파 채널인 ABC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김윤진은 5월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하고 제작사를 선택하는 등 포맷 판매에 큰 역할을 했다.

'슈스케5' 톱4 결정전 탈락

엠넷 '슈퍼스타K 5'(이하 '슈스케')의 **장원기**가 25일 방영된 톱 4 결정전에서 탈락한 소감을 전했다.

장원기는 27일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생방송 4라운드 무대에서 실수가 많아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슈스케가 없었다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각한다"며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4개월 '하은중 생활' 시원섭섭

배우 **김재원**이 MBC 주말극 '스캔들' 배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원수지간인 두 아버지 사이에서 고뇌하는 하은중 역을 열연한 그는 종영일인 27일 소속사를 통해 "4개월 동안 하은중으로 살아왔다. 시원섭섭하지만 그만큼 더 정이 가고, 애틋한 인물이다. 마지막까지 하은중으로 시청자들께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 회 대본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기황후' 속 대례식 사진 공개

배우 **하지원**(사진 오른쪽)과 **지창욱**(왼쪽)이 MBC 월화극 '기황후'에서 화려한 대례식을 치른 모습을 공개했다.

27일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렬한 붉은색의 황후 복장을 한 하지원과 위엄 넘치는 금 자수가 놓인 황제 복장을 한 지창욱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례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대례식은 극중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중국 황실 세트장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메이드 인 YG' 위너 벌써 열풍

해외 언론 데뷔 전부터 취재 열기… 양현석 "빅뱅보다 빨리 클 것"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8년 만에 내놓는 새 남성 그룹 위너(Winner)가 데뷔 전부터 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너의 최종 멤버가 가려진 25일 엠넷 '후 이즈 넥스트: 윈'(이하 '윈') 생방송 현장에는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홍콩 등 외신 기자들이 대거 몰려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다.

일본 산케이스포츠·스포츠닛폰·스포츠호치·도쿄주니치스포츠·데일리스포츠·닛칸스포츠 등은 현장을 직접 지켜본 뒤 27일 일제히 위너에 대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위너가 다음달 16일부터 6개 도시에서 16회 공연으로 치러지는 빅뱅의 일본 6대 돔 투어 오프닝 무대를 맡아 현지 팬과 처음 만난다"고 보도했다. 또 한 일 동시데뷔를 목표로 레코딩에 일본어 곡도 함께 수록하겠다는 양현석 YG 대표의 계획도 전했다.

스포츠호치는 "양현석 대표는 빅뱅보다도 빨리 일본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위너 멤버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일본어를 배워와 현지 팬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실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달 16일 세이부돔에서 4만여 일본 팬과 만난다.

위너는 엠넷 '슈퍼스타K 2' 출신으로 뛰어난 작·편곡 능력과 가창력을 갖춘 강승윤(19)을 리더로 내세운다. 남다른 무대 센스와 아이디어로 팀 내 안무를 책임지는 SBS 'K팝 스타' 출신 이승훈(21), 노래와 랩을 겸한 김진우(22), YG 래퍼 라인의 뒤를 잇는 송민호(20), 이번 대결에 참가한 11명 중 가장 많은 팬을 몰고 다닌 비주얼 담당 막내 남태현(19)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무도' 웃게한 정형돈의 눈물

MBC '무한도전'이 가요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시청률 집계기관 TNmS에 따르면 26일 방영된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 네 번째 이야기' 편의 전국 가구 시청률은 16.5%를 기록했다. 수도권 시청률은 19.5%까지 상승하며 20% 벽에 근접했다.

본격적인 가요제는 아직 방영되지 않았지만 '자유로 가요제 두 번째 이야기'를 방송한 351회부터 3회 연속 시청률이 상승(351회 0.8%포인트, 352회 2.8%포인트, 353회 0.6%포인트)하며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17일 열린 가요제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이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형돈이 '무한도전 가요제' 최초로 공개되는 단체곡을 녹음하다 눈물을 흘리는 등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가요제' 시청률 급상승 음원은 내달 2일 출시

방송을 통해 일곱 팀의 신곡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다음달 2일 출시될 음원에 대한 기대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음원 출시일이 늘어난 방송 분량으로 인해 한 주 뒤로 연기되면서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가요 관계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한도전'이 음원 시장을 싹쓸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현원기자 [illegible]

역시 트러블메이커 또 '19禁'화보 공개

포미닛의 현아(사진 왼쪽)와 비스트의 현승(오른쪽)이 구성된 혼성듀오 트러블메이커가 컴백을 앞두고 파격적인 화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27일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별관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과 밖에서 격렬한 스킨십을 나누는 듯한 설정의 화보를 공개했다. 자세와 가요계 섹시 퀸으로 취하는 현아는 앞서 공개한 티저 사진에서 의미 가장 높은 수위의 노출 화보로 주목받았다. /유순호기자

'분홍신' 표절이면 모든 노래가 표절

방시혁 등 아이유 지원

가수 아이유의 3집 타이틀곡 '분홍신' 표절 논란과 관련해 음악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인터넷상에 '분홍신'이 해외 뮤지션 넥타의 '하어스 이스' 와 유사하다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작곡가 방시혁은 자신의 트위터에 "음악에는 장르와 클리셰라는 개념이 있다. '분홍신'이 표절이면 그 많은 스윙재즈 곡들은 거의 전 곡이 서로 표절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곡가 김형석은 "비슷스윙은 빠른 템포의 곡이다 보니 보편적으로 리듬 형태가 비슷하다.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코드 워크도 다르고 노래는 '분홍신'이 훨씬 신나고 좋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분홍신'의 일부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유순호기자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은 환자 관절 정보에 따라 관절 삽입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수술 후 통증 및 출혈이 적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안산 튼튼병원 김형식 병원장 진료모습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로 새삶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환자 특성 맞춰 관절삽입 위치 정밀계산
퇴행성관절염 환자들 수술 후 통증·출혈 적고 재활기간 짧아

이모(58)씨는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에 시달렸지만 농사일이 바빠 병원에 갈 겨를도 없이 지냈다. 최근 통증이 더욱 악화돼 걷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 평소 O자형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씨는 통증과 함께 다리의 변형도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고, 심각한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 이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 후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씨 역시 같은 수술을 받고 무릎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오차 없이 수술 성공률 높이는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한 무릎 등 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 과도한 스포츠 활동과 높은 하이힐, 키 높이 신발을 착용하는 젊은층에게도 퇴행성 관절질환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됐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와 중기의 관절염인 경우 약물과 물리치료, 재활 운동을 통해 더 이상 질환이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지만 관절염과 더불어 O자형의 다리 변형이 진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퇴행성 변화로 인해 제 기능을 소실하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관절의 경우에는 특수 금속 및 연골을 이식해 인공적으로 관절을 만들어 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시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은 컴퓨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환자의 관절 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거돼야 할 뼈의 각도와 두께, 간격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 오차 없이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 및 출혈이 적고 재활 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전증 등 합병증 발생 확률도 낮다. 게다가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개인의 체형에 따른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인공관절을 15~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김형식 안산 튼튼병원 병원장은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삽입 위치를 결정할 때 집도의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튼튼 인공관절 내비게이션 수술은 컴퓨터가 환자의 관절 정보에 따라 관절 삽입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주기 때문에 집도의의 판단 실수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 수술의 성공률과 인공관절의 수명을 크게 늘여주는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허벅지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며 "수영과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체중 중심의 운동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illegible]기자

실명 부르는 '눈 중풍' 아시나요

망막혈관폐쇄 환자 급증… 시력 급저하 등 증상

'눈 중풍'이라 불리는 망막혈관폐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망막학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57개 병원 망막센터에서 망막혈관폐쇄로 진단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망막혈관폐쇄 환자가 26.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망막혈관폐쇄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당뇨병 등 위험 인자가 있는 중증 환자가 5년간 54.2% 증가했다. 중증 환자의 연령별 증가율은 80대 이상에서 무려 5.2배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70대(65.6%), 50대(45.3%), 40대(38.2%), 60대(36.9%) 등의 순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9만2306명)부터 2012년(13만790명)까지 국내 망막혈관폐쇄 환자는 약 42% 증가해 고혈압(약 19%) 및 당뇨병(약 26%), 뇌경색(9%)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망막학회 이결 회장은 "망막은 사진기에 빗대자면 필름에 해당하는 신경 조직으로 한번 손상되면 실명까지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수명이 다 된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망막혈관폐쇄는 망막의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망막 질환 중 하나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어머니에 간 70% 이식 '고3 효자'

이대병원서 지난달 수술
수능앞둔 시점 감동 두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 간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청담고 3학년 신동수(18·사진 오른쪽)군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 70%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신군의 어머니 [illegible](49·왼쪽)씨는 8년째 앓고 있는 B형간염으로 인해 간경변증이 악화되면서 암으로 발전했고 이에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홀로 삼남매의 자녀들을 돌봐야 했던 [illegible]씨는 아들이 수험생이라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이에 가믄 전해 들은 신군은 "입시야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지만 어머니[illegible]건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엄마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정을 선뜻 내렸다.

신군과 어머니의 간이식 수술을 담당했던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의료진은 "수술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려 너무 안타까웠다"며 "어머니를 위해 큰일을 감당한 신군이 준비를 잘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신군은 퇴원 후 다음달 7일 치러질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하트 볼륨 버터' 득템 기회

더페이스샵 다음달 4일까지 '수지의 해피세일'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다음달 4일까지 '수지의 해피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9월 출시 이후 15만 개 판매를 돌파한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를 30% 할인하고 해당 제품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는 촉촉한 윤기 보습과 탱탱한 탄력 효과를 주는 주름 개선 기능성 페이셜 버터로 최근 여성들이 원하는 볼륨 있는 뺨과 날렵한 턱선의 '하트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성분인 천연 식물성 망고씨앗 버터는 사막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100년이 넘게 사는 강인한 생명력의 망고나무 씨앗에서 추출됐다. 망고나무의 탁월한 영양 성분을 응축한 형태로 함유해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동시에 공급하며 하루 종일 촉촉함을 지속시켜준다.

또한 통통한 하트 모양으로 '하트씨앗'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풍선초 씨앗 성분이 피부 속 꼼꼼한 탄력을 도와 피부를 탱탱하게 관리하고 늘어진 턱선을 탄력 있게 잡아준다.

더페이스샵은 이번 할인 행사 기간에 맞춰 버터와 함께 사용해 보습 및 탄력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망고씨드 세라믹 하트 볼륨 에센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출시 기념으로 50%의 큰 폭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 밖에 남성 제품 전 품목과 가을·겨울철 필수 보습 제품인 핸드크림 및 보디 제품, 자연 발효 라인인 스밈 발효완벽 전 품목 등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박지원기자

제주신라호텔 추워지니 더 끌리네

11~12월 실속여행족 위한 온라인 스페셜 패키지 출시

제주신라호텔이 11~12월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는 실속파 여행객들을 위해 '온라인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였다.

다음달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월~목요일 투숙 시에만 예약 가능한 이번 패키지(2박 상품)는 온라인 예약으로 풍성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본관 스탠다드 객실과 조식(2인 1회), 제주산 식재료로 만든 최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더 파크뷰 디너 뷔페(2인 1회) 이용권이 제공된다. 또 사계절 야외 온수풀과 자쿠지에서 '야외 노천 스파'와 '문라이트 스위밍'을 즐길 수 있도록 투숙 중 횟수에 관계없이 야외 온수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고, 해변에 위치한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차와 다양한 스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 콘셉트의 라운지인 '라운지S'를 투숙 기간 중 원하는 시간에 2회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도 포함된다. 문의 1588-1142 /황재용기자

레스모아 '핼러윈 할인파티' 손짓

31일까지 30% 저렴한 가격

슈즈 멀티숍 레스모아가 핼러윈데이를 기념해 31일까지 '핼러윈 파티'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국 레스모아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클락스, 르베스, 푸마, 뉴발란스 등 인기 브랜드 슈즈의 펌킨 오렌지 컬러 모델을 3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레스모아 단독으로 판매 중인 끈 없는 운동화 푸마 '디스크 2.0', 빈티지한 감성의 뉴발란스 스웨이드 스니커즈 등을 실속 있는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핼러윈데이 당일인 31일에는 레스모아 매장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벤트 내용은 행사 당일 레스모아 홈페이지(www.lesmore.com)에서 공개한다.

레스모아 송철욱 팀장은 "행사 기간 동안 30% 할인은 물론 핼러윈데이 깜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큰 지도자의 리더십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가득이나 얼어붙은 정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대선 불공정 성명'을 발표해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주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면서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본심(本心)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시작으로 대통령 기록물 삭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등으로 정국이 얽혀있는 가운데 문 의원의 성명 발표로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김대업 병풍' 사태로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57만여 표 차로 패한 바 있으나 불복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은 108만여 표 차이가 난 여당 후보의 승리였고 유권자 3070만여 명이 참여한 선거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개별 행위들이 불법 선거일 수는 있으나 선거 결과까지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따라서 사법처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2건의 민생 법안과 새해 예산안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물론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진상이 철저히 가려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국회가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국회 내에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 '정쟁'과 '민생'을 나눠 소모전을 중지하고 경제를 돌보는 생산적 국회가 돼야 한다.

여야는 물론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여당은 승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큰 정치의 길을 열고 야당은 패자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투쟁적인 구태를 벗어나 새 정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지도자답게 행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든 아니든 '노무현 그림자'를 떠나 큰 틀의 정치를 구상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포토프리즘 | 태극기 흔드는 예쁜 손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도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며 태극기를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왝더독'

뉴스룸에서
김 태 균
<경제산업부장>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다. 영화 '왝더독(Wag The Dog)'에서는 미국 정치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비판했지만 최근 주식시장·부동산 시장 등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말이다.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각료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원칙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경우 MB 정부처럼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후 재인선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자진사퇴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공공기관장 평가결과 발표에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최고경영자(CEO)부터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인사 원칙에 따라 이지송 LH 사장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내세운 이런 명분 있는 인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바로 꼬리에 의해서다. 우선 MB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권 교체 시기마다 있었던 것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던 인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자 이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심지어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하지 않겠다며 은근히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인물들 중에는 전문성을 떠나 정치권 주변에 머물렀던 인물들이 많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비전문적 인물들이 기관장이나 주요 기관의 감사 등을 맡아 전횡을 저지른 사례는 많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코드 인사를 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에 중용될 인물이라면 전문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눈을 돌려 IT업계를 보면 최근 이석채 KT 회장 교체설이 돌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관여한다는 논란을 차치하고,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3배수 후보가 모두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채워져 대통령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이상 우리 주변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되면 안된다.

홍콩과 마카오 사이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빅토리아 항구의 가을바람이 홍콩의 밤을 설레게 하고 있었다. 마침 부다페스트 집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사라사테의 '지고이너바이젠'을 경쾌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사실 공연은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나 야외공연장은 영상으로 현장을 비추며 그곳이 바로 무대인 것 같은 환상을 연출했다. 고흐가 물감을 풀어놓았나 싶은 바다 위로 집시가 춤추는 느낌이었다. 나폴리보다 더 육감적인 항구도시다.

한때 역(驛)의 표시였던 시계탑 아래 야자수는 아열대의 풍경을 펼쳐놓았고, 광동어의 독특한 성조와 발음이 중국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돌아보면 이곳에는 아픈 상처가 숨 쉬고 있다. 1840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조를 난도질하고 이곳을 집어삼켰다. 홍콩은 이후 국제금융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지만 그전까지 동아시아 세계 자체를 의미했던 중화 체제가 이로써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카오는 16세기 포르투갈 제국주의 팽창 과정의 유산이다. 바스코 다 가마가 1497년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양에 다다른 다음 포르투갈은 1511년 말레이시아의 멜라카를 식민지로 만든 뒤 곧이어 중국에까지 뻗어나가 마카오를 자신의 거점지로 삼는 데 성공하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중국이 다름아닌 바로 이 두 도시 중간 지대라 할 수 있는 선전을 1979년 경제특구로 선정한 역사적 발상의 근원을 짐작하게 된다.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이곳을 서구의 모욕감을 돌파해 세계적 자부심으로 키우겠다는 것이고, 그 장구한 계획대로 선전은 오늘날 베이징 등과 함께 중국 4대 도시의 하나가 됐다.

선전에 담은 이 같은 중국의 거대한 야망을 고스란히 읽게 하는 것이 바로 소수민족 무용을 총망라한 공연이다. 공연 제목 '용봉무중화(龍鳳舞中華)'는 얼핏 소수민족들의 민속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중화의 가지로 통합해 전 세계에서 사멸하지 않는 불사조로 등장하겠다는 중국의 미래를 겨냥하는 지점이다.

중국 대륙은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빼어난 기억 속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걸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남중국해를 흐르는 집시 바이올린의 선율 속에서 아픔이 깊었던 국가가 거대한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빠르게 잊고 산다. 그래서 고통이 역사의 산모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에 갇힌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전셋값이 역대 최장기간인 6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정상화를 위해 4·1대책과 8·28대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감면 등의 주택 시장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8·28대책에서 발표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무사히 국회 통과를 이룰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령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찬반만 봐도, 야당은 상한제를 없앨 경우 부동산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유보하며 전월세상한제 등의 타협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과 달리 국내 서민 가구는 집 한 채가 자산의 거의 전부(70~8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가계 부채마저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 불어났는데 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서민 가구의 자산을 불릴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 같은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대외명분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국내 경제에 독이 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곰 안방서 사자 살았다

온몸으로 "세이프" 2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4회초 1사 만루 삼성 이지영의 파울플라이 때 3루주자 최형우가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뉴시스

선발 장원삼 6⅓이닝 2실점 호투에 안지만-차우찬-오승환 완벽계투…삼성 2연패 뒤 첫 승

한국시리즈의 사나이 장원삼이 삼성 라이온즈에 귀중한 첫 승을 안겼다

삼성은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3차전에서 장원삼의 호투를 앞세워 3-2 승리를 거뒀다 장원삼은 6⅓이닝 동안 삼진 3개를 포함해 4피안타 2실점으로 뜨겁던 두산 방망이를 잠재웠다

2010년부터 매년 한국시리즈에 출전한 장원삼은 이날 경기 전까지 21⅔이닝 4실점 평균자책점 1.66으로 큰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왔다

장원삼은 올해도 호투를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 정확하게 제구된 143㎞짜리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6회까지 두산 타선을 2안타로 막았다

KS 3차전 전적 27일

■잠실

삼성	000	200	100	3
두산	000	000	200	2

△승 = 장원삼(1승) △세 = 오승환(1세이브) △패 = 유희관(1패) △홈 = 홍성흔 1호(7회2점 두산)

장원삼이 7회 홍성흔에게 솔로 홈런, 오재원에게 2루타를 맞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안지만(7회)-차우찬(8회)-오승환(9회)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필승 계투조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특히 2차전에서 무려 53개의 공을 던지고 결승 홈런까지 맞았던 오승환은 9회 세 타자를 완벽히 막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삼성은 4회초 박석민-최형우의 안타와 이승엽의 볼넷으로 얻은 1사 만루의 기회에 박한이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이지영의 좌익수 뜬공으로 1점을 추가했다 7회에는 상대 실책으로 출루한 박한이가 보내기 번트 진루 뒤 3루 도루 두산 홍상삼의 폭투로 홈을 밟았다

올 포스트시즌 두산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유희관은 코칭진의 실수로 조기 강판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4회초 2실점하는 동안 코치들이 두 차례나 마운드에 올라 유희관은 3⅔이닝 동안 52개만을 던진 채 강제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적지에서 2승을 챙기며 한껏 기세가 올랐던 두산은 이날 전력 손실까지 입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주전 3루수 이원석의 결장에 이어 2루수 오재원마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실려나갔다

4차전은 28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재우(두산)와 배영수(삼성)가 각각 선발투수로 예고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돌부처 명예회복 삼성 마무리 투수 오승환(오른쪽)과 포수 진갑용이 3-2로 승리한 뒤 마운드에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끝내기 주루방해
세인트루이스 1패뒤 연승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 7전4승제)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끝내기 주루 방해 실책으로 2승을 따냈다

세인트루이스는 27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WS 3차전에서 4-4로 맞선 9회말 야디에르 몰리나와 앨런 크레이그의 연속 안타로 1사 2·3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보스턴은 다음 타자 존 제이의 2루수 앞 땅볼 때 홈으로 파고드는 3루 주자 몰리나를 잡아냈고 3루로 뛰던 2루 주자 크레이그를 잡으려다 악송구를 범했다 주자 크레이그는 보스턴 3루수 윌 미들브룩스와 충돌한 뒤 홈에서 아웃됐다

그러나 다나 데머스 구심을 비롯한 심판진은 미들브룩스가 크레이그의 주루권을 방해했다며 크레이그의 득점을 인정했다 /유순호기자

베일보다 네이마르
R마드리드전 1골 1도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바르셀로나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은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뒀다

바르셀로나는 27일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2013-2014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1로 꺾었다

이날 경기는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 다 실바(바르셀로나)와 '1억 유로의 사나이'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 등 두 신입 스타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결과는 네이마르의 완승이었다

네이마르는 전반 19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33분 알렉시스 산체스의 결승골까지 도왔다 반면 베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후반 16분 카림 벤제마와 교체됐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7일

	1Q	2Q	3Q	4Q	합계
SK	18	16	20	22	76
모비스	17	13	18	28	76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17	22	10	22	71
동부	20	18	13	7	58

	1Q	2Q	3Q	4Q	4Q	합계
KT	15	26	15	19	12	88
삼성	16	22	24	15	5	82

프로축구 전적 27일

[illegible]	2	1	전남

[illegible]

대구	2	2	[illegible]

[illegible]

부산	0	0	인천
울산	2	1	수원

[illegible]

27일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승현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현, 박인비 꺾고 첫 '메이저 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정상

이승현(22·우리투자증권)이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와 경쟁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년5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승현은 27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파72·6658야드)에서 열린 K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그는 2위 박인비를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승현은 2011년 5월 프로 데뷔 첫 우승 이후 2승째를 따냈다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보태 단숨에 상금 랭킹 톱 10에 진입했다

전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며 순식간에 우승 경쟁에 가세한 박인비는 이날 버디 5개를 뽑아냈지만 보기도 4개를 범해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경기를 마쳤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 랭킹과 올해의 선수 부문 선두를 달리는 박인비는 후원사 KB금융그룹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유순호기자

This needs to get to Chicago by the end of the week. 우편물 보내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이거 이번주 말까지 시카고에 도착을 해야 해요.
이 소포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려면 얼마인가요?
내용물에 대한 보험은 들고 싶어요.
편지에 사진을 몇 장 동봉했어요.
이것이 등기우편 양식인가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This needs to get to Chicago by the end of the week.
How much is it to register this package?
I'd like to insure the contents, please.
I enclosed some photos in my letter.
Is this the form for registered mail?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밑줄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A This needs to get to Chicago 이번주 말까지.
B I'll ship it priority then.

정답 by the end of the week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s this the form for [registered mail / insurance]?

2 I enclosed [some photos / a check for $10.00] in my letter.

현재완료시제 경험

▶ 정확한 과거 시점은 얘기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쓴다

긍정문	주어 + have/has + 과거분사 + 횟수
부정문	주어 + have/has + never + 과거분사 ~
의문문	Have/Has + 주어 + ever + 과거분사 ~?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읽어보세요.

1 I've eaten Korean food many times.
한국 음식 여러 번 먹어 봤어요.

2 He has never been to the States.
그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3 Have you ever won the lottery before?
복권에 당첨된 적 있으세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We are happy to ______ that the Annual Business Innovations Fair will be held at the Hervath Conference Center in Mayville.
(A) announce (B) attract
(C) invite (D) issue

02. Dresch Power Tools has stopped production of its battery-operated drill ______ poor sales.
(A) failing (B) excluding
(C) concerning (D) following

01. 우리는 연례 사업 혁신 박람회가 메이빌의 허바스 회의장에서 개최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해설 ~라는 사실을 알리다 발표하다가 적합하므로 (A) announce를 쓴다.
어휘 hold 열다, 개최하다, 열다 attract 끌다, 마음을 끌다 issue 발행하다, 발행하다
정답 (A) announce

02. 드레쉬 전동 공구는 저조한 판매에 뒤이어 자사의 가전지 작동 드릴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해설 판매 부진이라는 결과로 생산을 중단했다가 적합하므로 (D) following을 써야 한다.
어휘 power tool 전동 공구 concerning ~에 관하여 following ~후에, ~에 뒤이어
정답 (D) following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시하기

문제점 요약하기

해결책 제시에 있어 문제점을 요약할 때, 짧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메시지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내용을 모두 반복하거나 단어를 그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제점 요약 문장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some boxes were left in the hallway.
복도에 상자들이 있다고 메시지 남기셨습니다.

According to your message, some boxes make the hallway look messy.
메시지에 따르면 상자들 때문에 복도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I understand that some boxes were left in the hallway, and they make the hallway look messy.
복도의 상자들이 있어서 지저분해 보인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전화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를 요약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과하는 내용을 말해주면 더 자연스러운 답변이 됩니다.

I'd like to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